자유교쌀자의 《자유》타령

윤석열역도는 입만 벌리면 곧잘 《자유》에 대해 운운한다.

《자유의 가치》, 《자유의 시장》, 《자유시민》, 《자유로운 정치적권리》, 《자유민주주의》…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자유의 수호자》인듯 행세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민생이 날로 피폐해지고 검찰독재의 칼바람이 몰아치며 전쟁대결의 핑음이 그칠새 없는 피뢰지역의 실상에서 윤석열역도가 떠드는 《자유》가 어떤것인가를 실감하고있다.

역도가 부르짖는 《자유》는 사회의 1%밖에 안되는 특권층의 자유이다.

윤석열역도는 집권후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주요요직들에 검찰출신깡패들을 올려앉히고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정치보복과 저들에게 비판적인 언론들에 대한 박해,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단체들과 주민들에 대한 탄압에 날뛰면서 피뢰지역을 파쇼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놓았다.

더우기 지난 8.15를 맞으며 윤석열역도는 《최우선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우선적으로, 대대적으로 사면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1%의 있는자, 가진자들은 99%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향락만 누리고있다.

반면에 피뢰지역의 주민들은 어떠한가.

정치적무권리속에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윤석열역도가 들고나온 《로동개혁》에 의한 피해는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역도가 떠벌이는 《로동개혁》이란 사실상 기업들이 로동시간확대와 로동자해고를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하는 친재벌정책, 반로동정책이다. 이것으로 하여 한줌도 안되는 재벌들은 로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여 더욱 치부하게 되고 로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로동조건과 환경속에서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당하다 못해 실업자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황금만능의 피뢰지역에서 실업은 곧 죽음이다. 결국 역도의 친재벌정치에 의해 로동자들은 삶의 막바지에서 헤매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피뢰지역에서는 역도의 특권층중심의 정치로 하여 특권계층 한명이 평균 200세대의 주택을 차지하고있는 반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제 집이 없어 남의 집 세방살이를 하거나 움막, 비닐박막집, 짐함, 판자집, 천막과 같은 집아닌 《집》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있다.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경제형편이 더욱 악화되여 피뢰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렬악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특권층자녀들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청년들도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있다. 대학들에서 날로 높아가는 등록금으로 하여 대학생들이 과외로동으로 생활을 유지해가고있으며 대학졸업후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무직자로 전락된 수는 2023년 4월까지 무려 66만여명에 달하고있다.

하기에 피뢰지역 주민들은 그 땅을 《헬(지옥)조선》이라고 단죄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역도가 꿰치는 《자유》의 실상이다.

역도가 운운하는 《자유》란 독선과 전횡의 자유이기도 하다.

윤석열역도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기 바쁘게 이전 피뢰정권관계자들, 야당들을 비롯한 정치적반대세력들은 물론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보수세력내의 비윤석열파들에게도 가차없이 정치보복의 칼을 들이댔다. 지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운동단체들에 대해서도 《반국가세력》, 《폭도》의 감투를 씌워 폭압을 가하고있다.

반면에 주가조작,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일삼은 자기의 일가족속들에 대해서는 극구 비호두둔하고있다. 윤석열역도의 비호밑에 역도의 녀편네는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민생은 안중에 없이 해외에서 명품상점에 들락거리고 처가족속들은 부정부패행위에 더욱 날뛰고있다.

윤석열역도는 《자유》를 운운하며 친미친일사대매국망동과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역도에 의해 피뢰들의 경제는 미국의 철저한 예속물로 더욱 전락되고 섬나라것들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죄악청산을 회피하면서 력사외곡과 군국주의부활, 재침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지어 역도는 왜나라것들의 핵오염수방류책동까지 묵인비호하는 머저리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더우기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력대 최대규모의 북침핵전쟁책동을 벌리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열핵전쟁의 문어구에 이르렀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윤석열역도가 떠드는 《자유》란 친미친일사대매국과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의 자유이고 악정과 폭정의 자유, 특권층만을 위한 자유, 사리사욕을 위한 자유이다.

진정한 자유의 파괴자, 교살자가 《자유》에 대해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정의와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윤석열역도가 민심과 여론을 유혹하고 자기의 반역통치, 반인민적악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유》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그 흉심을 결코 숨길수 없다.

피뢰지역 주민들은 역도의 추악한 정체를 똑바로 보고있으며 《윤석열퇴진!》을 웨치면서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에 용약 떨쳐나서고있다.

역도가 《자유》의 너울을 쓰고 명줄을 부지하려 하고있지만 민심의 준엄한 심판, 비참한 종말은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조성혁

《민중을 죽이려는 윤석열〈정권〉 끌장내자!》

얼마전 피뢰지역의 여론조사기관들이 각계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윤석열역도와 여당인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률이 일제히 떨어졌다고 한다.

특히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역도의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식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 각계의 강력한 비난배격을 받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그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내놓는 정책이나 하는 짓거리들만 보아도 어느것 하나 민심에 역행하지 않는것이 없기때문이다.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전쟁연습,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 무지와 무능, 독단과 파쇼적전횡,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에 대한 비호두둔 등 모두가 민심과 여론이 반대배격하는것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뢰야당들과 각계층 단체들, 언론들은 윤석열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이라는것이 드러났다, 《북선제타격》, 《북정권종말》과 같은 대결폭언을 입에 달고 다니며 력대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과 미핵전략자산 전개놀음을 벌려놓은 윤석열의 전쟁대결소동이 그대로 핵전쟁위험을 최대로 증대시키고 경제의 장기침체요인으로도 되고있다,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가 《북추종세력》과 《반국가세력》들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있다고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리념전쟁》을 몰아오고있다, 야당들에 대한 정치보복과 비판적인 언론들에 대한 박해, 로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탄압 등으로 민주주의와 선거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있다고 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하고있다.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민중을 다 죽이려는 윤석열〈정권〉을 이제 끌장내자!》

이것이 민심의 의지이며 결론이다.

민심에 거역하는자들은 례외없이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만필

롱산깡패의 《올려치기》

윤석열역도가 쩍하면 사람들앞에서 유명한 축구감독의 몸짓을 흉내낸 그 무슨 《어퍼컷》인지, 《올려치기》인지 하는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때에는 학급학생들을 무력대고 패군 하던 《군기반장》, 《골목대장》이였고 검사시절에는 손찌검으로 피의자들에게서 토설을 받아냈다는 역도인지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것이 이제는 체질적악습으로 되였는가 봅니다.

문제는 그 짓거리가 제놈의 위세를 뽐내는 과시성동작으로부터 독재통치의 방식으로 되고있는데 있습니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대며 때리질 않나, 로동계를 《내란세력》, 《건폭》이라고 하며 두들기지 않나, 언론을 《가짜뉴스 진원지》로 몰아 윽박지르지 않나, 지어 제 뱔통에 맞지 않는다고 망둥어 제 새끼 잡아먹듯 보수세력의 중진인물들까지 개 패듯합니다. 최근에는 《통계조작》을 운운하며 이전 《정권》관계자들을 주먹치기로 완전넘어뜨리려 하고있습니다.

머리에 든것은 없지,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없지, 위기를 타개할 능력도 없지, 잘못을 반성할 렬끌만한 마음도 없지, 그러니 먹을것을 달라고 해도 매질이고 일자리를 달라고 해도 손찌검하고 바른말을 한다고 해서 주먹질을 하고 정의를 요구한다고 하여 들이패고…

말그대로 롱산에 틀고앉은 정치망나니, 정치깡패입니다.

자기는 때리기만 하고 대중은 얻어맞기만 하라는것이 역도가 입만 열면 내뱉는 《자유》이고 《공정》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대상을 적으로 여기며 가차없이 주먹질하려 하고있습니다.

최근에 떠벌인 망발을 들어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있다.》, 《공산전체주의세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제놈의 검찰독재통치를 반대하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공산전체주의세력》이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것입니다.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던 윤석열역도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셈입니다.

더우기 세계최강의 핵보유국을 어째보겠다고 하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짓거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니 민심도 옥옥합니다.

《윤석열이 북과 강대강으로 가자고 하는데 제정신이 있나.》, 《북은 〈한국〉을 애초에 싸움상대로도 여기지 않는다.》, 《윤석열, 저 쪼꼬만 애녀석이 확전을 각오한다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지.》, 《입으로는 무슨 말인들 못해. 군대도 기피한 놈이…》, 《녀편네가 나가라고 할 때도 무서워서 못나가는 주제에 전쟁! 웃기지 말아.》, 《전쟁 나고 재앙을 당하기 전에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민심은 욕만 하는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떠섰습니다.

저마다 불끈 틀어쥔 주먹을 하늘높이 쳐들고 《윤석열 퇴진하라!》, 《윤석열 심판하자!》라고 웨칩니다.

그 수많은 억센 주먹들에 맞으면 윤석열역도는 뼈도 못추릴것입니다.

역도의 주먹질이 정치시정배들에게는 어떨지 모르나 민심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롱산깡패의 주먹이 센지, 중오와 분노로 추켜든 민심의 주먹이 센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것이니까요.

더우기 지척에 있는 세계최강의 핵보유국에는 하루강아지의 망동같은 객적은 짓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주먹으로 제 이마빡을 깨는 어리석은자가 다름아닌 윤석열역도입니다.

김정혁

단평

《순장자 위로연》

얼마전 윤석열역도가 퇴임시킬 장관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먹자판을 벌렸다고 한다.

무려 4시간 30분동안 이어진 그 자리에서 역도는 빚좋은 말치레로 장관자리에서 물러나게 된자들을 추어주었다고 한다.

누구는 녀성인권을 위해 노력하였다느니, 또 누구는 《정부》의 철학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느니 하면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이번 먹자판에 모인자들은 모두가 장관자리에 올라앉은 후 역도의 꼭두각시, 수족이 되여 민심에 역행하는 악행만 저질러온자들이다.

녀성인권은 고사하고 《녀성가족부》 해체를 주장하였고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을 끌어들여 그 무슨 《야영대회》라는것을 벌려놓았다가 악몽같은 야영대회, 《죽음의 야영대회》로 만든 《녀성가족부》 장관, 섬나라것들의 핵오염수방류를 비호두둔하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리였는가 하면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는 언론들을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매도하는데 앞장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미국의 총알받이, 대포밥이 되여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국방부》 장관 등…

역도의 지시와 부추김을 받고 악행, 비행만을 저질러온 이런자들때문에 피뢰지역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이 짓밟혔으며 각계층이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살고있다.

이것은 민심의 커다란 저주와 분노를 자아내고있고 그 저주와 분노는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으로 폭발하고있다.

민심의 배격으로 막다른 통치위기에 직면한 윤석열역도는 자기에게 아부굴종하던 하수인들의 목을 떼는 방법으로 민심의 분노를 눅잦히려 하고있다. 그야말로 도마뱀 제 꼬리 자르는 식이 아닐수 없다. 하기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대통령》자리에 올라앉겠다고 나이어린 《국민의 힘》 대표에게 굽석거리다가 일단 권력을 쥐게 되자 언제 그랬냐싶게 가차없이 차버린 역도이다.

이번에도 자기의 정치적야욕과 잔명부지를 위해 제 바지가랭이를 맴돌던 측근들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껴버린것이다.

그리고도 장관자리에서 쫓겨나는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가자.》고 주절댄것을 보면 역도의 낯가죽도 이만저만 두꺼운것이 아니다.

자기의 리해관계에 저촉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서슴없이 죽음에로 내몰 인간추물이 다름아닌 윤석열역도이다.

이런 망나니를 상전으로 떠받들며 순종하는자들이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그러고보면 윤석열역도가 벌린 먹자판은 자기와 함께 순장될 졸개들에 대한 《위로연》이 아니겠는가.

리정남

《일본상품 불매하자》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여 피뢰지역에서 일본상품불매운동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환경운동련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서울에서 《후꾸시마 해양투기중단을 위한 일본상품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상품불매운동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방사능마크가 그려진 대형결개우에 《추석때 일본상품 불매하자》와 《일본맥주 먹지 말자》 등의 글자판을 게시하였다. 이와 함께 대형부표에도 조선어와 일어, 영어, 중국어로 표기된 《후꾸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라는 글자판을 게시하였다.

그런가 하면 방사능마크가 그려진 도람통에 일본맥주를 쏟아버리는 의식도 펼치였다.

환경단체들은 일본의 후꾸시마핵오염수방류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며 핵오염수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상품불매운동을 적극 벌리겠다고 밝히였다.

본사기자

일본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태가 도를 넘고있다.

인류공동의 재부이고 자원인 태평양에 핵오염수를 쏟아붓고도 낯색 한번 변하지 않고 저들의 반인륜적행위를 합리화해나서는 섬나라것들의 짓거리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의 해양방류강행으로 인류공동의 재부인 바다가 핵오염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섬나라것들이 벌리는 방사성물질이 다량함유된 핵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지구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핵오염수에 트리티움외에도 세시움, 스르론티움, 루테니움을 비롯하여 극히 위험한 방사성핵종들이 다량함유되여있다는것은 과학적으로 립증되였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운영자측인 도꾜전력회사도 자인한 바 있다.

지난 5월 후꾸시마현앞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들의 체내에서 기준수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시움이 검출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전문가들이 바다물흐름이 센 후꾸시마연안에 핵오염수가 방류되는 경우 50여일만에 태평양의 절반수역에 홀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조선의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이 땅의 명산과 명소들에 쇠말뚝을 박고 끓는 류황물을 쏟아붓고서도 핵오염수방류를 합리화하고있는 섬나라것들의 행태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러한 체질적악습인 파렴치와 후안무치의 집중적인 발현이다.

파렴치와 후안무치는 섬나라특유의 체질적악습

러들게 되며 몇년후에는 전세계의 해역으로 퍼져 수천년간이나 인류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칠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결코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나라족속들은 핵오염수를 《처리수》라고 강변하면서 해양방류가 잘못된것이 아니라느니, 리해해야 한다느니, 려과한 깨끗한 물이라느니 하고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파렴치와 후안무치는 섬나라족속들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체질적인 악습이다.

섬나라것들은 1592년에도 《명나라를 치러 가니 길을 빌려달라.》고 뻔뻔스럽게 뇌까리며 이 땅에 침략의 불을 질렀다.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를 총칼로 병탄하고서도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조선의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이 땅의 명산과 명소들에 쇠말뚝을 박고 끓는 류황물을 쏟아붓고서도 《지질탐사를 위한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이뿐이 아니다.

수백만의 조선청장년들을 죽음의 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강제로 끌고가 대포밥으로 만들고 노예로동을 강요한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조선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원적으로 한것》이라고 줴쳐대고있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든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자발적매춘》으로 매도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에 대해서는 저들의 땅이라고 생떼를 쓰고있다.

그런가 하면 조선에 대한 저들의 극악한 식민지통치가 조선의 문명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망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일본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한채 단지 비용과 로력이 적게 든다는 일본고유의 린색한 계산법을 내대면서 한사코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것이야말로 저들의 리기적목적추구를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섬나라것들의 추악한 본색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지금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인류공동의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려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와 그를 적극 비호두둔하는 세력들의 불순한 처사를 단죄규탄하며 인류에게 핵재난을 몰아올 해오염수방류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본은 머지않아 간특하고 파렴치하며 후안무치한 저들 특유의 악습이 섬나라에 어떤 비참한 후과를 가져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리명운

ㄱ-1634ㄷ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